후쿠진야마 갱도

후쿠진야마 갱도는 이와미 은광에서 유일하게 일년 내내 공개되는 류겐지 갱도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, 이와미 은광 내에서 가장 우수한 채굴량을 자랑하는 갱도 중 하나입니다. 이곳의 갱도는 총 3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2 개는 서로 연결된 형태로 긴잔(은광)강 아래를 지나 은광의 중심지인 센노산으로 이어지고, 그 바로 위에 1 개의 배기용 갱도가 놓여져 있습니다. 이 갱도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다른 이유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1700 년대에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이와미 은광의 소유권과 관리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려주는 갱도이기 때문입니다.

이 갱도는 독립적인 갱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독립적인 갱부들은 장소를 정한 후 광산을 관리하는 다이칸쇼(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)로부터 허가를 받고 스스로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여 갱도를 파내려 갔습니다. 이때 다이칸(다이칸쇼에서 집무하는 관리)에게 요구받은 양 만큼의 은을 상납할 수 있다는 능력을 증명하면 갱도에 대한 재산권이 부여되었습니다. 이는 은광이 번영을 누리면서 유지보수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이익을 낼 수 있었던 1600 년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난 방식이었습니다. 그러나 1700 년대에 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은 광맥이 고갈되면서 수익성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. 이때 후쿠진야마 갱도를 포함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된 갱도의 대다수는 다이칸쇼가 공금으로 취득해 경영했습니다. 이러한 광산의 부분적인 국영화는 은의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공공사업과 함께 실시되었지만, 그럼에도 결국 이와미 은광은 과거의 번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.